

함평나비대축제 26일 개막...꽃만발, 25만마리 나비·곤충

오는 5월6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23종 25만마리 나비·곤충 한자리서 만나

살아 있는 나비와 황금박쥐 조형물이 유명한 전남 함평의 친환경 나비대축제가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다.

함평군은 제26회 함평 나비대축제가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과 함평천 생태습지 일원에서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 명예문화축제로 지정된 함평 나비대축제는 '나비 찾아 떠나는 함평 여행'을 주제로 진행한다.

올해 축제의 대표 나비는 알록달록한 줄무늬가 특징인 '산호랑나비'다. 함평군의 상징인 호랑나비는 강한 번식력과 활동력으로 군민의 무궁한 발전과 만대번영을 의미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메리골드 등 30종의 다채로운 꽃 80만 본과 산호랑나비, 배추흰나비 등 23종 25만 마리의 나비·곤충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첫날인 26일 오전 9시 열리는 '나비날리기' 행사가 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7시 주무대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엑스포공원 중앙광장 일원에는 야의 나비날리기 체험, 전통민속놀이, 슬라임 체험, 나비가면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나비날리기는 유아·어린이 동반 가족(회당 50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매일 5회(오전 10시·11시, 오후 1시30분·2시30분·3시30분)에 걸쳐 실시한다.

잔디광장 주무대에서는 전국청소년댄스경연대회, 나비콘서트 등 문화공연을 선보이며, 생태습지에서는 아기 동물과 친구되기, 젓소 목장 나들이 체험, 나비손수건 만들기, 비눗방울 놀이 등을 무료로 운영한다.

특히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연 속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멍 때리기 좋은 곳'도 마련했다. 생태습지 일원에 10여 동의 텐트를 설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육식물관에서는 다육선인장, 용설란 등 650종 3000 본을 전시하며 수생식물관에서는 열대야자, 수련 등 72종 546본과 비단잉어 등 4종 300마리를 볼 수 있다.

나비·곤충생태관에서는 살아있는 나비 곤충 일대기와 실내 나비 날리기 체험을 진행하며 나비곤충표본전시관에서는 세계 희귀 나비·곤충 표본과 곤충 VR(가상현실)미디어 체험을 할 수 있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함평추억공작소' 있다. 엑스포공원 내 금호아시아나관 옆에 지상 2층, 연면적 2223㎡ 규모로 신축한 함평추억공작소는 1970~1980년대 함평의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특히 이곳 전시장 1층 입구 공간에는 최근 금값 상승으로 화제를 모은 황금박쥐상을 상설 전시한다.

축제의 백미인 공연 또한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준비했다. 27일에는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우승 댄스크루인 '홀리밴'이, 28일에는 감성 발라드 '케이시'가 무대에 오른다. 5월 1일은 국민 밴드로 불리는 'YB(윤도현밴드)'가, 5월 4일은 인기 록밴드 '육중완 밴드'가 무대를 장식한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엄마까투리 공연과 그룹 코요태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5월 6일에는 어버이날을 이틀 앞두고 트로트 가수 박서진, 김정우가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축제장은 밤이 되면 야간경관 조명이 손님 맞이에 나선다.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된 엑스포공원 일원에는 꽃과 함께 장식된 야간경관 조명이 더해져, 형형색색의 빛으로 수놓인 색다른 모습의 엑스포공원을 만나 볼 수 있다.

저녁시간 이후에는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함평 자동차극장'도 있다. 함평자동차극장은 축제장과 인접해 있으며, 매주 신



나비대축제가 열리는 전남 함평엑스포공원 야간 경관. (사진=함평군 제공)

작 영화가 개봉하고 배달 음식도 현장에서 수령이 가능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올해 함평 나비대축제는 가족들을 위한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힐링과 행복을 선사할 것"이라며 "전국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무안군, 영산강 자전거길 청호리 단절구간 연결 개통 주룡나루~청호습터~죽정천 하류 자전거길 2.2km 연장 조성

무안군은 영산강 자전거길 청호리 단절구간이 연결(주룡나루~청호습터~죽정천)되어 개통했다고 밝혔다.

기존 청호리 구간은 자전거와 차량의 사고위험에 항상 노출되었다.

이에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노선 변경을 추진하여 국토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국비 72여억 원이 투입되어 2019년 10월에 착공(익산청 광주국토사무소)하였고 2023년 12월에 준공(영산강유역환경청)됨으로써 데크로드 1.27km, 콘크리트 포장 875m의 자전거길이 연장(2.2km) 조성되었다.

연결된 구간인 주룡나루~청호습터~죽정천 하류 자전거길 2.2km는 무안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인·인계받았다.

영산강 자전거길 청호리 단절구간이 연결됨으로써 상사바위 전설을 안고 영산강의 멋진 전경도 즐기면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자전거 이용자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인·인계받았다.

영산강 자전거길 청호리 단절구간이 연결됨으로써 상사바위 전설을 안고 영산강의 멋진 전경도 즐기면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자전거 이용자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군 양봉농가, 멜론농가 등에 수정 꿀벌 나눈다 17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서 지원 신청 접수, 상생협력 나서

(사)한국양봉협회영암군지부와 영암군이,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수분 작업을 돕기 위해 17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수정 꿀벌 지원 접수를 받는다.

꿀벌은 꿀 생산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수정을 위한 화분 매개체로서 생태계의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꿀벌은 월동기간에 꿀벌 응애류 감염, 이상기온 등으로 개체수가 줄었고, 그 여파는 멜론, 사인머스켓 등을 재배

하는 시설원예농가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수정 꿀벌 지원은 영암군의 중개농 양봉농가 '과수 생산 및 품질 향상 장비지원 사업'의 이름으로 시설하우스 농가와 본격 상생협력에 나선 것. 꿀벌 신청은 영암군 농업경영체 등록 과수 재배농가에서 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양봉농가와 시설하우스 농가의 상생협력으로 작기에 수정 꿀벌이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안군 '2024 섬 수선화 축제' 성공 개최 234명 사는 작은 섬에 인구수 72배에 달하는 1만 7천여 명 다녀가

신안군은 선도에서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7일까지 17일간 열린 '2024 섬 수선화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나의 사랑 수선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신안군의 첫 꽃축제다. 섬 지역의 특성상 바다 날씨에 민감한 만큼 하늘의 운이 따라야 갈 수 있는 불편한 교통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주민 234명이 사는 작은 섬 인구의 72배에 달하는 1만 7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수선화 단일 재배면적(13.4ha)으로는 최대를 자랑하는 '수선화 섬 선도'는 수선화정원, 수선화재배단지, 수선화의 집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장관이 펼쳐진다.', '특별한 경험이다.' 등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신안군은 아직 지지 않은 수선화의 여운을 담고 있는 선도에 찾아오는 관람객을 위해 4월 30일까지 여객선을 증편연장 운행하며, 여행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수선화 단일 재배면적(13.4ha)으로는 최대를 자랑하는 '수선화 섬 선도'는 수선화정원, 수선화재배단지, 수선화의 집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장관이 펼쳐진다.', '특별한 경험이다.' 등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신안군은 아직 지지 않은 수선화의 여운을 담고 있는 선도에 찾아오는 관람객을 위해 4월 30일까지 여객선을 증편연장 운행하며, 여행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신안=이덕주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는 "작은 섬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감격스럽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선화 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년 선도에 방문하시어 수선화 향과 함께 봄을 만끽하는 치유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